# 전남지역 각종 개발사업 '속 빈 강정'

## 개발부담금조차 못내 … 무분별 인허가 등 원인

## 지역 발전보다는 토지소유주에만 이익 돌아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전남지역에 추진된 크고 작은 개발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속 빈 강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 완료 후 사업자가 채산성 악화 등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도 빈번해 개발 이후 지역경제에 보탬은커녕 부정적인 영향만 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과 관련 허술한 사전 타당성 검토, 무분별한 인허가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지역 내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 3년간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발 행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지, 임야 등을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개발에만 충실, 지역경제 전반보다는 토지소유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띠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2개 시·군에서 인허가를 받아 토지개발비용 1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1년 미징수 개발부담금 13억5400만원(50건) 가운데 7억6300만원(19건)이, 2012년 15억3310만원(36건) 가운데 9억9600만원(17건)이 부과자 거소 불명 등이 원인이었다. 2013년에도 15억5020만원 가운데 10억9910만원을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는 등 전체 미징수 개발부담금 중 60~70%가 개발행위 이후 부도가 나면서 사업자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전남지역 22개 시·군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85건(8억1600만원)이었으며, 이후 2012년 45건(8억483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15건(28억2520만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구례·고흥·완도·진도 등에서는 단 1건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없었다. 개발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내 개발행위는 순천·여수·목포·광양 등 시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이벤트를 치른 순천에서는 이 기간 전체 개발행위 245건 가운데 92건(37.55%)이 발생했다. 2012년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 개최했던 여수 53건(21.63%), 광양·영광 15건(6.12%), 목포 14건(5.71%)이 그 뒤를 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개발행위 자체도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조성, 도심재개발,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10가지 가운데 오로지 지목변경수반사업만 반복되고 있는 등 천편일률적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담금 징수를 위해 사업자를 종용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거소 불명"이라며 "대규모 사업이 없고, 그나마 있는 사업도 농지나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으로, 개발 전후의 토지가격을 산정해 상승분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친환경디자인박람회 성공개최 다짐 이낙연 도지사가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 이만의 조직위 임시위원장, 명현관 도의장, 디자인 및 친환경 소재 전문가들과 함께 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친환경 스토리를 가진 전남지역의 자원이 잘 디자인된 포장재와 함께 프리미엄 상품으로 발전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시의회, 조직개편안 갈등의 골 깊어지나

## 공무원노조 성명에 시의회 발끈… 이달내 처리 의문

민선 6기 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윤 시장의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시는 시의회가 이달 내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면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개편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일부 시의원들은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통안전과를 부활시키고, 6개계에서 3개계로 축소한 대변인실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편안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의 조직개편안 수정안 등이 나오면 오는 28일 전 의원 간담회 등을 갖고 늦어도 이달 말 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놓아 이달 내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다.

이 과정에 지난 22일 공무원노조가 조직개편안 처리를 유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면서 분위기는 갑작스럽게 냉각됐다.

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은 24일 "노조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상대로 규탄성명을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장현 시장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달 말까지 정기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28일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30일께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수정안을 처리해주자는 일부 의원들 의견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의 돌출행동으로 원포인트 의회를 개회하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장현 시장과 고위간부들의 정무적 마인드와 기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모 시의원은 "소통을 강조하는 윤 시장이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재선 의원들은 별도로 만나 양해를 구하고 초선 의원들한테는 전화 한 통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경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의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을 생각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처리를 부탁하는 등 정무적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의 정무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시장 때 같으면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국장 등 실·국장이 총동원돼 밤낮으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조직개편안 내용을 설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었을 텐데 민선 6기 들어 그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줄 윤 시장의 정치력이 앞으로 난제(難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北 나진·선봉에 제2개성공단 검토"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북한의 나진 선봉 경제 특구에 제2개성공단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단이 나선 지역 등 북한 경제 특구를 방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날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열린 '2014 백두 포럼'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계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김 회장이 지난 2월 북한에 330만㎡ 규모의 제2의 개성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토론회에서 "경제인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100% 성공이라고 볼 수 없지만 125개 남측 기업이 진출해 5만20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며 상당히 많은 기업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망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는 나진·선봉 지역이 (후보지로) 많이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에따라 중소기업 대표단의 방북도 추진한다.

민간 교류 차원에서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나선 지역을 포함한 북한 경제 특구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남북한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 중소기업 간 민생 협력을 위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호소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 지원도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호주서 관광버스 추락… 한국인 추정 7명 사상

호주에서 24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께 6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남부 빅토리아 주의 대표적인 해안길 명소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달리던 미니버스가 젤리브랜드 로우어 교차로 인근 협곡에서 2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하면서 일어났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승객과 운전사 등 6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주 긴급구조대의 폴 홀맨 대변인은 "사고가 난 버스에는 18세에서 20대 중반까지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만 항공기 비상착륙하다 화재… 47명 사망

## 한국인 탑승자 없어

대만 서해안 외곽 섬에서 23일 오후 소형 항공기가 악천후 속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지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인 티브이비에스(TVBS) 등에 따르면 승객 54명과 승무원 4명 등 58명을 태운 대만 푸싱항공 소속 GE-222 소형 항공기가 이날 오후 7시6분(현지시간)께 펑후섬 마궁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 일부가 지면에 부딪히재서 화염에 휩싸였다.

목격자들은 이 사고기가 머리 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졌으며 금방 화염이 항공기 전체로 번졌다고 전했다.

대만 교통부와 현지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4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사고기에는 한국인 탑승자는 없었다고 푸싱항공과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 승객 등 116명 탑승 알제리 여객기 실종

서아프리카 상공을 비행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갑자기 실종됐다.

실종된 이 비행기에는 대다수가 알제리 국적인 승객 11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AP와 dpa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알제리 당국은 이 여객기 실종 사건을 긴급 사태로 간주하고 공군 등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알제리항공은 이날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서 알제리로 향하던 이 회사 소속 항공기 AH5017편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알제리항공 측은 "여객기가 이륙한 지 50분 뒤 항행지원서비스와 연락이 끊겼다"고 현지 통신사 APS에 말했다. /연합뉴스